

역사에서 살펴본 精神一到 何事不成

노 윤 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기원 전 5세기의 헤로도투스(B.C.484? ~ B.C.425)는 그리스가 배출한 유명한 역사 학자이다. 그의 저서 「역사」는 당시 동서 분쟁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정점으로 생각되는 페르사 전쟁을 사실적(史實的)으로 분석 기술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고대 산문사상(散文史上)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고대사가 시가(詩歌)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인데 철학자인 키케로에 의해 헤로도투스는 '역사의 아버지'로 칭송된 바 있다.

동양에서는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로 전한(前漢)의 사마천(司馬遷, B.C. 145? ~ B.C.86?)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태사공(太史公)으로 존칭되고 있는데, 한무제(漢武帝, B.C.141 ~ B.C.87) 치세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고문으로 된 전적(典籍)을 배웠고 전국적으로 사적을 답사하여 견문을 넓히기도 하였다. 부친의 뒤를 이어 태사령(太史令)에 임명된 그는 역사서를 기술하라는 아버지의 유언과,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릉(李陵) 장군이 평소에 남다른 충절과 용감성이 있음을 칭찬 변호한 것이 무제(武帝)의 분노를 사서 궁형(宮刑)에 처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어 그 유명한 「사기」를 남기게 되었다. 중국인의 가치관이 문장을 통하여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확신

에서 시작된 사기는 그의 발분(發憤) 저서인 셈이다.

사기의 특징은 공자의 '춘추' 저술 태도에 바탕을 두고 미관대의(微官大義)를 느낄 수 있도록 기술된 역사서로서 공자 사후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기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제(五帝)로부터 한무제까지의 연대기로서 제왕을 중심으로 기술된 「본기(本記)」와 제후를 위해 일한 인물 이야기를 집필한 「열전(列傳)」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광(李廣)의 화살

그 열전에 이광(李廣) 장군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광은 농서군(隴西郡)의 작은 마을인 성기(成紀)에서 출생했는데 집안이 모두 무관 출신이다. 그의 선조인 이신(李信)은 진(秦)의 장군으로 연(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하는 연의 태자를 사로잡아 큰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이광의 집은 대대로 궁술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이광은 평생 동안 북방의 야만족인 흉노의 침입을 맞아 70여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루면서 큰 전공을 세워 많은 상금을 받기도 했으나 조정으로부터 높은 벼슬을 받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이 항상 그의 불만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광이 향촌에 머물며 이렇다 할 일 없이 소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술에 취해 밤늦게 거리를 노닐다가 야간 통행 금지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이미 오랫동안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반백의 이광을 알아보는 역리(驛吏)는 물론, 그의 신분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만취된 상태에서 울분을 가라앉히며 역정(驛亭)에서 쓸쓸한 밤을 지새운 것이다.

이 일이 있는 후 얼마되지 않아 흉노가 대대적으로 침입해 왔다. 요서군(遼西郡)을 짓밟은 흉노는 태수와 많은 양민을 죽이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는 등 진(秦)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이 소식을 접한 천자(天子)가 이광을 불러 태수로 임명하면서 불구대천의 원수인 흉노를 물리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광이 침략군 토벌의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흉노는 비장군(飛將軍)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며 퇴각했다고 한다. 이광은 그만큼 무골로서의 위엄이 뛰어난 장군이였다.

이광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이광은 시야가 별로 좋지 않은 늦은 오후에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급히 전통에서 화살을 뽑아 힘껏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다.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는 어느 분묘 앞에 놓인 석호(石虎)였는데 화살촉이 깊숙히 박혀있는지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 다시 한번 궁시를 힘껏 당겼으나 화살은 튕겨나갈 뿐이었다. 몇 번을 시도했으나 화살은 번번히 비껴나갈 뿐이었다.

팔만대장경의 판각 정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 유산 가운데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목판에 양각된 팔만대장경을 들 수 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받아 전국토가 유린된 상태에서 강화도로 임시 천도한 고려 왕조가 부처님의 법력(法力)에 의해 침략군을 격퇴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염원에서 일으킨 국가적 대사업이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지경인데 대장경 판각에 국력을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불교 국가였던 고려 왕조가 호국불교(護國佛敎)의 사상을 숭상했음을 수긍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을 착수하면서 고려인들은 대장경의 글자 한 자를 판각할 때마다 일자삼경(一字三耕)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글자 하나를 판각할 때마다 세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께 큰절을 하였다는데, 우선 침략군의 격퇴를 염원하면서 부처께 경배하였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국가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끝으로 본인과 가족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면서 부처께 큰절을 했을 것이다. 이같은 정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급성의 사회적 문제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조급성이 사회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 하다보니 길이 후손에게 전해져야 될 독립기념관의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개통된 지 1년도 못된 고속도로는 재포장 공사가 불가피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대형 건물이나 철교가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 하지 않았던가? 모든 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한 곳에만 모으면 안되는 일이란 없을 것이다. 이광(李廣)의 일화가 그렇고, 우리 팔만대장경이 또한 이를 말해주고 있다. ☸